

## 7. 생명의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창 1:20-23).

다섯째 날이다. 공중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고기들이 헤엄치게 하라 하셨다. 날짐승이나 물고기는 사실은 둘 다 나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을 보면 나는 것과 같다. 하나는 공중에서 날고 하나는 물속에서 나는 것이다.

비행기가 무거운 짐을 싣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힘이다. 그런데 새들이 나는 것을 보면 너무 쉽다. 자유자재로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장난을 치고 별 짓을 다 한다. 새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것이 얼마나 힘이 좋으면 공중에서 노는지 놀랍다. 우리는 잠시도 공중에 머물 수 없는데 새들은 공중에서 자유롭게 물속의 고기들은 한 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왕성한 생명을 보려면 물고기나 날짐승을 보면 된다.

맨 처음 물이 드러나서 땅이 되었고 땅에 식물이 났고 그 다음에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난 다음에 날짐승들의 세계가 나왔다. 식물의 생명은 움직이지 못한다. 살아 있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생명을 식물이라고 한다. 날짐승들의 세계가 나왔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움직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다.

창세기는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다. 사람 속에는 식물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다. 식물 같은 생명도 우리 생명 속에 있고 동물 같은 생명도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는데 이것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라고 하였다. 식물을 창조하실 때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는데 동물의 세계에 들어오면서 복을 주셨다는 말이 나왔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이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이다. 무슨 생물이든 무슨 동물이든지, 잘났든지 못났든지 간에 일차적으로는 생육할 수 있어야 한다. 생육하지 못하면 멸종되고 만다. 생육이라는 말은 영어로 fruitful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끝이다. 그러므로 생육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가장 첫 번째 있어야 할 복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 생명은 식물처럼 가만히 정지되어 있으면 안된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는 것, 씨를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첫째 축복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사탄의 지식은 무엇이 다른가? 지식은 씨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 그에 비하면 생명은 아무리 미천한 것이라도 씨가 있다. 번식을 한다.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씨가 없다. 문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씨가 없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은 씨가 없다. 사람은 씨 있는 것을 만들 수 없다.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것, 항공우주과학 같은 것은 우리는 상상도 안된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짐작할뿐이지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어느 별나라에 가기 위해서 로켓을 쏘았는데 몇 달, 몇 년만에 도착한다는 것이 상상이 안된다. 그것도 1m의 오차도 없이 목표에 적중한다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 기술이다. 사람은 못할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씨 하나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씨를 만들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 해도 비행기가 비행기를 낳지는 못한다. 공장에서 만들고 또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낳아지고 낳아진 것은 공해가 된다.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고 필요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인간에게 공해인 것이다.

나무를 사용해서 만든 것은 쓰다가 못쓰게 되면 썩어버리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썩지 않는다. 백년이 가도 안썩는 공해물질이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사람이 만든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래를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은 공해물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영원하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다. 생육이 첫 번째 축복이다. 인간에게도 생육이 없으면, 결혼이 없으면 50년, 100년 후에는 아무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뭐니 뭐니 해도 생육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다. 원시적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생육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다. 생명에서 나온 것은 계속 생산을 한다.

그러나 생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공자님 말씀에 듣고 수양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씨가 안되니까 사람마다 계속 수양을 해야 한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양을 하면 놀라운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전이 안된다. 누구든지 그대로 반복해서 수양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증인이 되라.” 하셨다. 이렇게 생명의 세계와 지식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다.

이것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사람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도달하자는 주장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지혜를 얻어 살아가자는 주장이 하나 있다. 철학의 노선이나 신학의 노선에서 이 두 가지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 어느 것이 더 완전하겠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 보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올라가면 아무리 가도 사람밖에 안된다.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천만 명이 모여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사람에서부터 시작해서 찾아 놓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다 분열되어서 다른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이라고 한다. 교회도 그런 신학을 따르는 데가 많다.

그에 비해 보수적인 데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정해진 대로 믿어야 된다고 한다. 그러나 무조건 믿으면 우리는 모르고 믿는 것이니까 답답하다. 성경에 있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답답하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으니 자기 집안 사람이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한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하는지 모르면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차를 타고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이 옆에 앉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기에 듣고 나서 당신들은 안식일을 주장하는데 안식일을 지키느냐고 물었더니 지킨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은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다. 배우기도 쉽고 말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쉬운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지키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 지식이다. 다른 사람은 꼭 그대로 답습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저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융통성이 전혀 없다.

생명은 그렇지 않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똑같이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야 되지 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없다.

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간다.’ 고 하면 항상 동쪽으로만 가는 줄 안다. 그렇지만 동쪽으로만 계속 간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분은 필요하면 서쪽으로 갈 수 있는 분이다. 쉬운 것 같지만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첫 번째 축복은 생명의 충만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생명의 노선을 따라야 한다.

지식의 노선을 따르면 안된다. 집안에서도 지식을 따라 집안을 경영하면 법률에 따라 경영하는 것이 되니까 답답하게 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법률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지식에 따라 관계를 갖게 되면 좋을 때는 좋아도 나쁠 때는 무지하게 나빠지게 된다. 둘이 서로 의리를 가지고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볼 때 의리를 배반했다고 보이면 어찌 되겠는가. 친구가 깨져 버린다. 의리로 맺어진 친구는 참된 친구가 안된다. 지식으로 맺어진 친구는 참된 친구가 될 수 없다. 같은 학교로, 같은 직장으로 맺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깨져버리면 다 깨진다.

그런데 가족은 그렇게 만난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만난 관계다. 가족이고 같은 피가 흐르니까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친해지는 것도 아니다. 생명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생명이나 지식이나의 차이다. 처음에 볼 때는 질서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없는 것 같은데 질서가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있다. 생명은 이런 것이다. 구호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이 있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은데 된다.

교회당을 지을 때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무슨 수로 교회당을 짓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봐도 돈을 낼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

는 아예 포기하고 아무 데서나 집회만 하면 되지 교회당을 짓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이 모아졌는지 몰라도 소리 없이, 조용하게, 부흥회도 안했는데 교회당이 지어졌다. 보통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으려면 얼마나 부흥회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짜고 또 짜려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았듯이 부흥회를 한 번도 안했고 건축헌금을 독려하지도 않았다. 아무 것도 안될 것 같은데 된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일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자세히 알면 신비로울 것이다. 일부러 계획해도 이렇게 될 수 없다. 연극을 하려고 해도 미리 각본을 짜고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각본도 없이 살았다. 대구교회에 와서 각본을 찾으려 안된다. 각본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도 없다. 그냥 사니까 살아지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사회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갈 줄 알았더니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갈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간다. 전혀 예상과 다르게 가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다. 그래서 축복도 첫 번째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할 사람이 하지 안할 사람은 안한다. 내가 여러 번 말해 보았지만 안할 사람은 안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라고 안해도 잘한다. 속에서 자꾸 나오니까 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세계는 영 다른 세계다. 우리 교회에서는 잘해 보려고 힘쓰면 헛일이다. 잘될 것 같지만 안된다. 힘만 쓰게 된다. 버스를 타고 앉아서 자기 보따리를 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기 보따리를 이고 있다 해서 버스가 가벼워지겠는가? 내가 자꾸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먹으면 자라고 자라야 무엇이 되는 것이지 각본을 만들어 놓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각본을 주시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생육하려면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려면 사시와 연한이 필요하다. 창세기의 과정은 생명의 길이다. 어린 아기가 어린 아기와 결혼해서 아기를 낳겠는가? 커야 아기를 낳을 수 있고 크려면 사시와 연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식물이 난 다음에 광명이 나게 하시고 사시와 연한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것은 생명의 경험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사람의 성장 과정이 그러하다.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표현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원래 물 속에 갇혀 있던 흙처럼 아무 소망도 희망도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어디서 빛이 와서 시작을 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빛이 와서 시작한 것이다. 그러더니 궁창이 와서 숨을 쉬게 했다. 그리고 땅이 드러나더니 식물이 나왔다. 그리고 일월성신이 나와서 사시와 연한과 징조가 생겼다. 그러더니 오늘은 물고기와

날짐승이 날고 있다. 이것이 사람 되는 과정이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인생이 변해가는 과정이다.

새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나는 힘이 없으니까 힘 좋은 것이 제일 부럽다. 이제 나에게 발견되는 것은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라는 것이다. 우주는 전부 에너지로 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의 ‘하나님’은 힘, 능력이라는 뜻이다. 엘로힘, 혹은 엘 알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전능자라는 뜻이다. 어떤 큰 능력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지금 보니 내가 숨을 쉬는 것도 능력으로 쉬는 것이다. 여러분은 숨을 어떻게 쉬는지 잘 모를 것이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에너지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에너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숨이 들어와도 그것을 산소로 바꿔 쓸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지금 내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다른 사람처럼 숨을 쉬는데 나는 산소를 골라 먹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밥도 잘 먹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산소포화도가 올라간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힘이 없으면 같은 숨을 쉬고 있어도 산소포화도가 떨어진다. 알고 보면 내 병은 에너지의 문제다.

병원에서 밑에 의사들이 내 증상만 보고 그것만 치료하려고 애를 썼다. 한 달 동안 입원했는데 거의 매일 세 번씩 피를 뽑아갔고 매일 사진을 찍었지만 늘 병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에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퇴원을 하기 위해서 교수에게 찾아갔는데 그 교수는 발목을 만져 보더니 차다고 하면서 모든 치료를 중지시키고 영양을 보충하게 했다. 그때 나는 교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은 나에게 에너지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다른 의사들이 콩팥에 무엇이 남아 있느니 어찌니 하며 발버둥치고 있었는데 그 교수는 한 번 보고 “영양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다. 매일 피를 30CC씩 뽑았으니 영양이 남아 있겠는가.

집에 온 다음에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했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빠져 버렸는지 먹을 수가 없었다. 먹는 것도 에너지로 먹는다. 에너지가 없으니 입이 바짝 말라서 밥을 아무리 씹어도 넘어가지 않았다. 육수를 끓여서 먹으니 겨우 넘어갔다. 그렇게 먹기 시작해서 지금은 밥은 마음대로 먹는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어떤 힘이 있어야 되지 이 힘이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약도 소용없다. 힘이 있어야 약도 들어가지 힘이 없으면 약을 써도 소용이 없다.

성경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전능자가, 태초에 에너

지를 가진 그분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는 하나의 에너지가 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 국제사회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힘이 제일이다. 옳은 것 그른 것, 이런 주의 저런 주의라고 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된다.

세상은 능력이 지배한다. 그동안 미국이 초강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해왔다. 미국에게 잘못 보이면 안된다. 이번에도 미국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되는 이란 사람을 한 방에 없애버렸어도 이란은 꿈쩍도 못한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을 바짝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 맞수를 쓰면서 대들고 늘 이유를 붙이는 것이다. 북핵 문제도 중국이 가로막고 있어서 해결이 안된다. 그렇지만 경제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어쩔 수 없게 된다. 이로 보아 세상도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전체가 에너지가 지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에너지의 원천이 생명의 번식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고 하셨다. 우리 교회도 에너지가 지배한다. 하나님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지배한다. 그래서 어느 형제가 나와서 에너지를 발산하면 교회가 확 살아난다. 한철이가 나와서 백퍼센트 한번 해 버리면 백퍼센트가 돼야 하는 것이다. 백퍼센트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깊이 속에서 나온 말이다. 요즘 우리 교회의 키워드가 백퍼센트라고 한다. 간증도 하면 백퍼센트를 해야 한다. 이것이 힘이다. 생명이 충만하면 힘이 생긴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생명이 충만한지 알고 살을 만져 보면 생명이 충만한지 안다. 거기서 에너지가 막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이다. 로또 복권이 당첨되어야 축복이 될 것 같은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주실 것은 생명밖에 없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되면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게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래서 문제가 되고 저래서 문제가 된다. 모든 부정적인 것이 생긴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온갖 문제들이 생긴다. 지금 내 얼굴에 점도 아닌 것들이 많이 났다. 원래 내 얼굴은 깨끗했는데 지금은 오만 것이 나서 없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시원찮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더덕더덕 붙은 것이다. 이것은 아마 파내도 도로 나올 것 같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면 죽는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주시오, 저것을

주시오 할 것이 아니다. 생육하는 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나는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소개하는지 아는가. 그것이 우리의 에너지다. 우리 삶의 에너지고 거기 우리의 근본이 있다. 이 근본을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것도 해결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알고 만족하면 다른 문제가 싹 없어진다.

너무 잘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잘못하지 않으려고 할 것도 없다. 내 안에 생명이 정상적인 생명이 되면 일부러 잘 하려고 할 것이 없다. 일부러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실족하게 된다.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자. 너무 잘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반작용이 일어난다. 반작용이 일어나면 원망이 생기니까 잘하려고 하지 않고 잘해야 되지 잘하려고 힘쓰다 보면 욕이 나와 버린다.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다 와서 목사였던 남편에게 백퍼센트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지금은 그 어머니에게 치매가 왔고 전혀 딴 사람이 되어 맨날 죽은 남편 욕을 하며 자기를 고생시켰다는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참았던 것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이다.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훌이불을 뒤집어쓰고 그 추운 예배당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살던 분인데 치매가 오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하고 억울하다고 한다는 것이다. 자녀들이 전화해서 민망해서 못듣겠다며 자기 엄마가 왜 저렇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살면서 참고 살면 안된다. 다음에 치매가 오면 그것이 다 터져나오니까 참고 살면 안된다. 율법으로 살았으니 저렇지 생명으로 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은 원체 사람이 좋아서 남편이 큰 소리치고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아주 부드러운 분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자녀들이 실망을 해서 우리 엄마가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나도 걱정되는 것이 혹시 우리 집 사람이 저렇게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지금 실컷 하는 것이 낫지 내가 죽은 다음에 원망하면 안된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느 신부가 한 말이다. 가톨릭 방송에서 강연을 하고 나오면서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 목사들은 다 잘하라고 하는데 그 신부는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했다. 모세가 처음에 불을 만날 때 가시떨기가 타는 것을 본 것을 예로 들며 그 말을 했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 신부는 그것이 가시나무가 다 타 버리면 재가 되니까 나무는 안타고 불만 탔다는 희한한 해석을 했다. 그러면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신부라 그런지 힘쓰고 애쓰라고 하는 목사들과 달리 너무 힘쓰고 애쓰면 힘이 소진되어서 다음에는 반동이 일어난다고 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생육하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현래 목사가 억지로 하지 말라더라.’ 라며 자기 멋대로 하면 평생 그렇게 된다. 생명은 들어오지 않고 방법만 그렇게 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율법이 생긴 것이다. 율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율법이 생긴 것이다. 생명이 넘치면 누가 율법을 주겠는가! 생명으로 하는데 율법이 필요하겠는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누가 막겠는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축복의 첫 번째 항목이고 축복의 전체다. 힘이 넘치면, 에너지가 내 몸을 충만하게 하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므로 땅에 이것이 충만해진다면 땅은 온전해질 것 아닌가!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환경이 이래서 이렇다고 하고 환경이 저래서 저렇다고 한다. 끝이 없다. 왜 그런가? 생명의 충만이 없어서 그렇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 사람과 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것은 나는 사람이라는 그 자리에서 만족한다는 것이다. 오늘도 누구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기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것이 참 사람이니까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죽어 봤지만 아무 것도 본 일이 없다. 아무 것도 본 일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것을 보았다고 하고 저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나는 본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다.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본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사람이 아닐까 싶다. 죽어서 다른 세상에 갔다 왔다는 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신기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도 신기가 있어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박아 놓았는데 뚜벅뚜벅 걸어내려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전부 일어나서 경배할 것 아닌가. 그중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따라온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걸어내려왔으면 얼마나 신이 났겠는가.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라야 되지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것은 괴물이다.

‘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지어놓으셨구나.’ 라고 알고 나니 너무나 편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사는 것이 사람이다. 억울할 것도 없다. 사람이니까 억울해 봤자 소용없다. 나는 자기 환경을 놓고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다는 사람을 보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는 것 같다.

SNS에 누가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기에 나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자식도 너무 사랑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답글을 달았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다음에 원망이 생긴다. 진짜로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잘하려고 할수록 좋지만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나중에 원망이 생긴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는가. “적당해 해라.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위하고 적당히 존경해라. 지나치게 하지 마라.” 고 하지 않겠는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공자님 같은 분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충성도 자기 생명 이상으로 하면 안된다. 그러면 사고가 난다. 그리고 나중에 원망을 한다. 교회 봉사를 해도 자기 생명 이상으로 해 버리면 다음에 어디에 문제가 생겨도 생긴다. 무엇이든 자기 생명만큼 해야 되고 자기 생명만큼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러나 자기 생명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할수록 힘이 빠져서 그 신부님 말대로 떨기나무가 타 버리게 된다. 타서 재가 되어 버리고 만다.

그 신부님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은 이유를 그렇게 해석했다. 너무 애를 쓰면 타버려서 재가 되었을 텐데 너무 애를 쓰지 않았으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라고 했다. 그 신부는 교황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을 두 번나 하면서 “교황님 하신 말씀이 기도해서 손해 볼 것 없다고 하셨다.” 고 했다. 기도해서 손해 볼 것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손해 보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니 교황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그 신부는 교황님께서 그렇게 말했다고 두 번이나 말하면서 자기도 웃었다. 기도해서 손해 볼 것이 있겠는가? 입만 나불나불했는데 손해 볼 것이 있는가? 그런데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기도를 해서 손해 볼 것 없으니까 하라는 것이다. 그 정도 되니까 교황이 된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 보자. 기도해서 손해 볼 것이 있는가, 교회 와서 손해 볼 것 있는가? 좋은 말씀 듣지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데 손해 볼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

게 생각하고 교회 오면 된다.

옛날에 어떤 사업하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대구의 신진욱 씨 같이 유치원,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운영했던 분이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기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믿으면 천당간다니까 믿는다는 것이다. 안믿어서 지옥가느니 믿어서 천당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것이다. 혹시 천당에 못가도 밑질 것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젊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저러니까 사업을 하는구나. 저런 마음이니까 사업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계산이 빨랐다. 하나님을 믿어서 천당가는 것이 낫지 굳이 안믿어서 지옥에 가면 어찌겠는가.

여러분도 잘 계산해 봐야 한다. 이 말이 세상 사는 데 아주 중요한 말이다. 생명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가짜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 잘살게 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천당도 못가면 어쩌나.’ 하고 있으면 안믿는 것만 못하다. ‘하나님 믿어서 손해 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 믿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상을 살기가 쉽다. 이렇게 못하면 살기 어렵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린다.

어려서 교회에 갈 때 우리 아버님은 한 번도 나를 교회에 못가게 하시지 않았다. 아버님은 유교 학자는 아니지만 유학정신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들어서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아버님이 방해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아버님이 근심하는 것을 못보았다. 가끔 사람들이 와서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버님은 “어디 가면 청산이 없느냐.” 고 하셨다. 어디 가면 묘지가 없느냐는 뜻이다. 아버님은 평생 객지에서 사셨다. 고향에 가면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른인데 섬에 와서 사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사람들은 아버님을 어디 돌아다니다가 장사해 먹고 사는 영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하얀 분이 오더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버님께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아들이었던 것이다. 노인네가 와서 절을 하니까 사람들은 ‘저 영감이 저런 영감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이다. 고향에서는 제일 어른이지만 객지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도 아버님은 자기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사치 영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세상은 세상대로 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어디 고정되어 있어서 ‘이래야 되는데 왜 안되는가?’ 하면 살기 어렵다. 세상 일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 생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생명이 아닌 것은 다 진실이 없으니까 진실이 없는 줄 알고 살아야 한다.

생명의 세계에만 진실이 있지 생명이 아닌 데는 진실이 없다. 이것을 구별하면 편하다. 생명 외에는 진실이 없다. 혹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 ‘저 상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알면 된다. 이것이 지혜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가 참 사람이다.’ 이것만 알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지혜가 된다. 억지로 할 것도 없고 더 욕심을 낼 것도 없다. 있는 것은 하고 꼭 자기 할 만큼 하게 된다. 이 자리가 중용이다. 중용(中庸)이라 해서 한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적당하다는 뜻이다. 이 사람은 적당하게, 자기 분수에 맞게 산다. 인간 자체의 분수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알면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별 것 아닌 줄 알면 안된다.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못내려온다는 말을 자꾸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러분은 이것을 천만 번 알아야 한다. 알면 저절로 다른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영생을 얻는가? 이 자리에서 알아야 그렇게 되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고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데 안했다고 알면 안된다. ‘뛰어내리지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야 영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꾸 십자가에서 못내려온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분수를 알게 된다. 자기 분수도 물론이지만 인생의 분수를 알게 된다. 우리가 진실한지 아닌지 알게 되는 것이다. 맹세한다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다고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약속을 해도 개가 약속한 것은 개의 약속이다. 개가 짖지 않기로 약속을 맺고 도장을 찍는다고 그것이 지켜지겠는가. 그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우리는 맹세할 수 없다. 맹세할 사람이 못된다. 이렇게 하겠다거나 저렇게 하겠다고 맹세할 수 없는 사람이다. 어느 날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생명만이 축복이다. 다른 것은 축복이 없다. 지식은 축복이 아니다. 잔피를 부리는 것이지 지식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생명만이 축복이다.

요즘 중국에서 무서운 병이 돌아다닌다고 하지만 약한 사람이 문제지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것이 문제가 안된다. 생명이 약하면 별 거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붙는다. 귀신도 생명이 허약한 사람에게 들어붙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들어붙지 못한다. 시골에서는 귀신에 홀렸다는 사람이 많다. 밤에 시골길을 가다 보면 으스스한 데가 있는데 술 먹고 오다가 그런 데서 도깨비를 만나는 것이다. 정신이 충충한 사람에게는 도깨비가 없다. 여자들은 출산할 때 피를 많이 흘리는데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허해지고 그럴 때 귀신이 보이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병과 다르니까 이럴 때는 잘 보신해 줘야 한다. 아기를 낳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은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이니 정신과 약으로는 안되고 크게 보신을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다. 새가 공중을 나는 것을 보면, 물고기가 물에서 놓는 것을 보면 저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도 그러하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는 저절로 온다. 쫓아다닐 필요도 없다. 저절로 굴러온다. 은사를 받으려고 산으로, 들로, 부흥회로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쫓아다닌다고 되겠는가. 자기 자리에 있어야 하고 분수에 맞아야 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다.

한동안 우리 나라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산아제한을 했다. 먹을 것은 없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안되겠다며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다. 그때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낳기도 전에 죽었는지 모른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구가 모자라서 난리다.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발전하는데 인구가 줄기 때문이다. 소비할 사람이 있어야 자본주의가 되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는 오בות하게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어야 하니까 사람이 많으면 안되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앞으로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교회는 산아제한을 하면 안되고 무진장 낳아야 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으니까 무진장 낳아야 한다. 전도를 해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이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 인생에 남을 사람은 이 사람뿐이다. 친척이고 뭐고 다 없어지지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영원히 남는다. 인생을 가장 잘사는 방법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영적인 생산력이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다.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같이 살면 인생이 풍부해진다. 다른 것으로는 풍부해 봤자 소용없다.

생산력의 충만함,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데서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함이 있다. 성경은 풍성함에 대해서 수없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이 자리에서 나온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다고 했는데 아홉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니까 인격적인 생명이 충만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화평하게 된다. 불평과 불만은 인격적인 생명이 충만치 못한 데서, 인격의 결함에서 생겨난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축복의 시작을 모르면 무엇이 축복인지도 모른다. 복권에 당첨되면 축복인 줄 알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생명의 충만’, 이것이 첫째 축복이다.

에베소서에는 이 축복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다. “죄와 허물이 없어진다. 십자가에서 화목이 된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의 자랑이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새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모든 영적인 항목의 축복들이 이 생명 안에 들어 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긍정적인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성경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당장 벼락을 내려서 죽일 것 같은 것도 있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되어 있다. 함부로 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긍정적인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건강한 사람은 잘 못느끼지만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식욕이 까다롭다. 위장이 좋고 식욕이 좋으면 어지간한 것을 먹어도 다 소화되고 다 살과 피가 된다. 그러나 위가 약한 사람은 까다롭다. 이것을 먹으면 되지만 저것을 먹으면 소화가 안되고 10g을 먹으면 되지만 15g을 먹으면 안된다. 위장이 까다로워져서 맛이 있니 없이, 짜니 싱거우니 하며 트집이 많아진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것이 없는가 하며 찾게 되고 조금만 안맞아도 짜증이 난다. 식욕이 좋으면 없어서 못먹을 음식인데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 조심해야 한다. 옛날에 형제들이 젊을 때 고기를 한 번 먹으면 힘이 난다고 했는데 나는 아무리 먹어도 힘이 나는 줄 모른다. 똑같이 고기값이 들어도 나에게서는 고기값이 안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백퍼센트가 나온다. 뷔페 식당에 가서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것을 보면 먹을 것이 많아서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실망이 된다. 돈만큼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바퀴

둘러보고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일단 검사해 봐야 되지 처음부터 먹다가는 좋은 것을 못먹는다. 위장이 좋으면 처음부터 다 먹으면 되는데 속이 안좋으니까 신경을 안 쓸 것을 신경써야 되는 것이다. 뷔페 식당에는 안으로 들어갈수록 좋은 음식이 있다. 처음부터 먹다 보면 좋은 음식을 못먹는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긍정적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이래도 부정적이고 저래도 부정적이다. 교회 안에서 순모임을 하고 교회생활을 해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좋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소화가 안되니까 그런 것이다. 자기 입에 딱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먹고 와서도 별로 맛도 없다고 하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너무 많다고 한다.

내 어머니가 입이 짧은 분이라 동네 잔치에 갔다 오면 한 번도 잘 먹었다는 말씀이 없고 항상 먹을 것이 없다고 하셨다. 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면 부주돈이 아깝다. 인생은 간단하다. 속에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면 만사가 좋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다 좋다.

긍정적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소문난 잔치에 배고프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 가면 내가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지고 부족함이 없어진다. 이것이 역설이다.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잠을 못잘 정도로 많아진다. 그것을 세다 보면 잠을 못잔다.

나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전에는 왜 예수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가, 왜 예수가 나에게 해 준 것이 없는가 하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나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남이 다 버리고 갔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줄 몰랐다. 여러분도 이 예수가 진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먹을 것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맨 처음 주신 축복이다. 성경을 읽어 보면 축복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처음 나온다. 이 자리가 축복이 처음 나온 자리다.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늘로 말미암은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같이 교회에 왔어도 어떤 사람은 풍성하고 배부른데 어떤 사람은 배고프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 어디서 그분을 만나느냐에 따라 풍성해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 것이다.

가난한 것은 막을 수 없다.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돈이 없어서라면 돈을 주면 되지만 이것은 돈이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다. 십자가로 끌고 가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돈이 없지만 이재용 씨같이 돈이 많으면 한 밀천씩 떼 주고 욕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재용 씨는 그것을 붙들고 있으려니까 저렇게 욕을 하고 배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왜 공짜로 받았느냐. 너는 일도 안하고 부자 아버지에게 금수저로 태어나서 공짜로 먹느냐.” 하는 것은 배가 아파서다. 그런다고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은 배가 아파서 못견디는 것이다. 그럴 바에야 다 나누어주고 입을 막아 버리면 될 것 아닌가. 신문사마다 한 뭉치씩 주면 조용해질 것 아닌가. 검찰청에도 한 뭉치씩 주고 편하게 살면 좋겠는데 무슨 죄로 맨날 끌려다니는지 모르겠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이 다 이런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나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희망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즉 생육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기 바란다.

생명의 충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는 죽었지만 생명이 충만한 분이다. ‘충만’이라는 말은 타이어에 공기가 들어가듯이 팽팽해진다는 말이 아니라 온전해진다는 말이다. 감이 익으면 홍시가 된다. 그러면 뽕은 맛이 없어지고 맛이 있게 된다. 이것이 충만이다. 뽕은 감을 먹으면 맛도 없고 입 안에 가득 차서 목에 넘어가지도 않는데 홍시가 잘 익으면 얼마나 맛이 좋은가! 술술 넘어간다. 이것이 충만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라 생명의 완숙, 생명의 숙성, 이것이 충만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 자체도 맛있고 그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맛있고 모든 것이 맛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다. 왜 측량할 수 없다고 했는가! 살아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은 측량할 수 없다고 알게



된다. 경험해 보면 어제 다 나왔는지 알았더니 오늘 또 나온다. 어제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행복하다.

새들을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야! 저놈은 생명이 충만한 놈이구나.’ 라고 보고 물고기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말고 ‘저놈은 생명이 충만하구나.’ 라고 알아야 한다. 우리가 물고기처럼 헤엄을 치고 새처럼 공중을 마음대로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수리는 공중에서 물 속에 있는 고기를 본다. 어려서 직접 보았는데 동네 앞 바다에서 수리 한 놈이 공중에서 돌더니 총알처럼 내려가서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안나오기에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한참 후에 커다란 송어 한 마리를 붙들고 올라왔다. 육지에서도 안보이는데 공중에서 물 속에 있는 송어를 어떻게 보았겠는가. 생명의 신비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 안에 있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기독교가 시대 때문에 위기에 몰렸다고 하는데 위기에 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변할 것이 없다. 세상을 따라가는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간다면 세상이 복잡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옥석이 구별되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러므로 세상이 변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생명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